

#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학생·교사가 만들어가’

전북교육청, 학교 현장 탐방 연수… 사업 추진 전문성 신장  
내년 사업 추진 7개 학교 참여… 전주성심여고 등에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학교 현장 탐방 연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2026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대상 7개교 교장 및 교감, 업무담당자 등이 참여한 이날 연수는 전주성심여고와 전주해성고에서 이뤄졌다.

연수는 학생과 교사가 활동의 중심이 되는 학교 공간을 설계하고, 미래 사회 핵심 역할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시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전주성심여고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교 공간을 재구성해 고교학점제 기반 시설을 마련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일반교실 재배치를 통해 여유 공간을 확보해 마련한 ‘홈베이스(Home Base)’ 공간은 학교와 학생 참여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효과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이어, 전주해성고는 개방형 중앙 현관을 홈베이스 기능과 결합해 학생 자



전주성심여고 '홈베이스' 공간.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한 특징이다.

이 공간은 다양한 융합·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며, 학생 참여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효과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기반 시설을 마련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 산업체·외국인유학생 간 구인·구직 매칭 확대

전주비전대서 ‘2025 전북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지역정주 기반 형성 도움 기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최한 2025년 전북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가 지난 26일 전주비전대학교 드림관에서 열렸다.

400여 명의 유학생과 25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및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과·미래모빌리티학과 등 유학생 11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1:1 현장 면접, 취업비자 및 지역특화 비자 인내, 이력서·입사서류 1:1 컨설팅, 다국어 통역 지원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면접채용관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품질관리,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의 면접이 이뤄졌으며, 정책 홍보관과 컨설팅관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전환 및 지역 정주에 필



지난 26일 전주비전대학교 드림관에서 열린 ‘2025년 전북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사진=전주비전대학교 제공〉

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백일현 국제교류원 부원장(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은 “학업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체외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유학생들이 향후 진로 선택과 지역정주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RISE사업단, JJ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RISE사업단은 지난 26일 ‘2025년도 JJ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RISE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실무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및 기업체의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형 인재를 기르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8개 팀, 34명의 학생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여 총 8개 팀이 수상의

##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싱가폴 콘래드에 재학생 16명 최종합격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호텔경영학과 STAR 팀(이다빈 외 3인)의 ‘드랍 더 푸드!(Drop the food!)’ 팀은 뛰어난 창의성과 실력 기능성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우수상은 상담심리학과 힐링 포즈 팀(송주연 외 3인)과 작업치료학과의 T.N.T 팀(이정훈 외 5인)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패션산업학과, 작업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3팀이 우수상, 작업치료학과 2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경영대학, ‘2025 경영대학의 날’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경영대학은 지난 26일 ‘2025학년도 경영대학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경영사례 PT 경진대회 △지역 정책과 지속 가능한 진로 전략 특강(명사: 이원택 국회의원) △GENIE STAR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웰링지 분석 등 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역 산업 및 금융 생태계와 연

계한 실무 중심 교육 플랫폼을 마련했다.

김효진 경영대학장(회계세무학과 교수)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실무 현장을 체감하고 미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장은성 기자

## 학교 내 ‘맹목적 복종’ 종식 선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교원·행정직 모두 복종 의무 죽쇄 풀려… 학교 대변혁”



“이제는 교육청과 교장 선생님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암시’에 따라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천호성 전주 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지난 25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두고, 이는 ‘행정실만의 변화’가 아닌 ‘학교 전체의 대변혁’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회의 76년 묵은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법·부당한 명령 거부권’을 명시했다”며 “주목할 점은 이 변화가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게 대로 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검토하고 책임 있게 반론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상명하복’이라는 낡은 관행 탓에, 교원은 교육적 소신보다 교육청과 관리자의 빙침을 강요받고, 행정직원은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어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천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무실과 행정실이 함께 만드는 학교자치’의 새로운 모델

을 제시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그는 “진정한 학교자치란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고, 구성원 각자가 전문가로서 존중받는 것”이라며 “교사는 부당한 지시에 맞서 ‘교육과정과 학생’을 중심에 둘 목소리를 내야 하고, 행정가는 관행적인 지시가 아닌 ‘명확한 법규와 절차’를 근거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직 내 갈등이나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교육청과 관리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하직원의 ‘거부’가 아니라, 아무런 고민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영혼 없는 순종’”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직원들에게 ‘남대로 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검토하고 책임 있게 반론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상명하복’이라는 낡은 관행 탓에, 교원은 교육적 소신보다 교육청과 관리자의 빙침을 강요받고, 행정직원은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중고’를 겪어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천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은 계기로 ‘교무실과 행정실이 함께 만드는 학교자치’의 새로운 모델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부 주관 2025 시·도교육청 평가 성과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2층 강당에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본청 부서장, 팀장, 지표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평가 결과 공유 및 분석 △2026년 평가 대응 방향 △정량평가 지표 관리 사례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지표별 강점 및 개선 지점을 확인하고, 정량 지표 위험 요소 사전 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며 부서별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4개 영역, 21개 지표 전체를 인정적으로 관리해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학력 향상 지원, 안전한 학교 조성,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노력, 학교폭력 근절 노력, 장애학생 통합교육 여건 조성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정성평가 영역에서 ‘전북형 늘봄’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서식편의점’을 교육청 전체 교직원이 사용하는 메신저와 연동해 모든 학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은 타 시도와 차별화 된 사례로 인정받았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평가 지표관리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모든 교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전북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학생 목소리, 정책으로”

### 전주교육지원청, 전주학생의회 제안 4건 후속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선임)은 전주학생의회가 올해 2학기 정기회를 통해 제안한 4건을 관계기관 등에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해, 학생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주학생의회는 정기회에서 △진로·학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학생 면접 역량 강화 교육 △고등학생 대상 응급처치 교육 강화 △청소년 교통비 인하 등 총 4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학생의회 규칙에 따라 설명과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전주교육지원청은 의결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지원청 내부 부서와 전주시청·버스정책과에 검토를 요청해 정책 반영 가능성과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의원들의 의견은 2026학년도 전주학생의회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청 생활교육과장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제안한 의견이 공공정책 논의로 이어진다는 점이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학생 의견이 지역 교육 현장에 인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야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의산부송중, 김장봉사 진행

의산부송중학교(교장 정숙주)는 27일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노담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협동해 김장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교육복지대상 학생 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봉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의산부송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노담’의 수익금으로 준비했다.

학부모 주도의 김장봉지 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협동조합이 함께 김장을 담그고 수육을 포장해 주연 250장과 난방용 기름을 직접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사용된 연탄 및 기름 구매 비용은 학생들의 교내 모금 활동과 학부모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바자회, 재능 기부 공연, 기부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액을 조성했다.

이 모금액과 후원금으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장은성 기자



고 전했다. 이어 “건축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태어나고 있다”며 “미완의 작업들이 오히려 앞으로의 건축을 향한 희망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번 준비 과정에서 건축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실천임을 다시 깨닫게 됐다”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고민을 나누고 제작에 힘을 보탠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더 좋은 건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임감도 크다”고 소감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결과보다 과정, 건물보다 관계, 완성보다 실천을 중심에 두고 교육·연구·설계를 잇는 건축을 계속하고 싶다”며 “이 전시는 완성의 기록이기보다 다시 이어졌던 시간들은 공백이 아니라 언젠가 모습을 드러낼 베이와 같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지평선중, 사랑의 연탄 봉사

지평선중학교(교장 안성균)는 27일 김제시 성덕면 이웃들을 대상으로 ‘제21회 사랑의 연탄 및 기름’ 기부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 및 교직원 20여명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연탄 250장과 난방용 기름을 직접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사용된 연탄 및 기름 구매 비용은 학생들의 교내 모금 활동과 학부모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